

GANGJIN 

# *Web Contents*




# 목차

목차	2
기사자료	3
제18회 영랑시문학상 공고(2021. 1. 19. 동아일보)	3
첨부파일(1)	3

### 제18회 영랑시문학상 공고(2021. 1. 19. 동아일보)

작성일 2021.01.19 13:34 등록자 시문학박기념관 조회수 158

첨부파일(1)  영랑시문학상 신문 공고.png 38 hit/624.4 KB [다운로드](#)

A26

피플 & 투데이

제30918호 2021년 1월 19일 화요일 **동아일보**

## 재일교포 의사

1969년 일본 한신대지진 당시 피해자를 돌보는 데 앞장섰던 재일교포 3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안 가쓰야사(安浩史·1900~2000) 씨를 다룬 NHK 드라마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 일'이 영화되도 만들어졌다고 일본 NHK방송사가 7일(현지시간) 17일 밝혔다. 지난해 방송된 동명의 NHK 4부작 드라마를 116분짜리 영화도 제작되었다. 29일 도쿄에서 개봉할 후 일본 전역에서 확대 상영한다.



일본 한신대지진 당시 의료봉사에 앞장선 재일교포 3대 안 가쓰야사(安浩史)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 일' 포스터. 이 영화는 29일부터 일본 전역에서 순차적으로 개봉한다. 배급사가 동아일보이다.

1976 지진 피해가 가장 컸던 고베에서 열린 시회에서의 제자를 잃은 교포인 안 가쓰야(安浩史) 씨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 일'은 "대동 세계를 무대로 한 인간의 사랑도 고백했지만 엑스트라로 출연했던 수많은 시인과 국장 관계자 등이 영화에서 상영해야 할 동등한 대우를 기대할 수 있다"며 영화에 국민 계몽을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신대지진 당시

히로(廣島) 씨가 영화와 작업에 참여해 행복을 주었다. 지난해 1.2월 방송된 이 드라마는 방송 문화기공상 TV드라마부문 최우수상, 일본방송비평(단독)의 월간 권위상 등을 수상했다. 예모토 다쓰(尾形圭三·89)가 안 씨 역을, 오노 미치코(小野千子·40)가 배역을 연기했다.

드라마와 마찬가지로 영화 역시 안 씨가 재일교포의 정체성을 자라하는 과정을 비중 있게 다뤘다. 자신이 한국계임을 모른 채 '야스(安浩史)'로 성으로 살아간 그는 초등학교 시절 우연히 오진외국인등록증을 발견한 후 이 사실을 알고 상심한 충격을 겪었다. 고교 시절 친구가 "야스다와 '안' 중 어떤 이름을 부를까"라고 묻자 "야스다라고 부르면 거짓말을 하는 것 같다. 안으로 불러 달라"고 답했다.

한신대지진은 1969년 1월 17일 고베, 오사카 등에서 일어난 규모 7.3의 대지진으로 6434명이 숨졌고 4만900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 당시 고베에 부속병원에서 근무하던 안 씨는 지진 때문에 병원도 다들 공중파로 방송되므로 피해자들의 동년배 상체를 돌렸다. 일본 외상수술학회(일본외상학회)의 최우수논문상이라는 영예를 딴 안 씨는 당시 활동을 담은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 일'이란 책을 발간했다. 2000년 4월에 출간된 지 21년이 넘었다. 도쿄=박기념 특약동(love@donga.com)

## 신격호

'유종결'으로 불리는 30대 신격호 뜻대로 병명폐회(사건)의 1주기를 하루 앞두고 8일 오후 2시를 넘어선 윤리인 추도행사가 18일 열렸다. 신격호 뜻을 되찾은 이날부터 22일까지 뜻대로들이 운영하는 '윤리인 추모관'을 통해 "어려움이 올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그것을 극복해 나가야 하는 굳은 의지와 이바지의 마음을 기울여야 어떤 힘든 순간도 이겨내겠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어려위는 조국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가지고 끊임없는 도전과 노력의 열정으로 사회와 국가에 기여하고 싶어하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어려위가 같은 사태를 살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 그 가르침을 깊이 새겼다"고 덧붙였다.

신 명예회장의 장녀인 신영자 뜻대로복지재단



전 이사장은 주로 영상에서 "어린 시절 보낸 타국에서 힘들게 사셨을 하시면서도 늘 고국과 고향을 생각하시고 그러하시겠다"고 했다. 아울러 "그런 마음이 뜻대로는 그들을 알고 한국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겠다"고 했다.

각계의 추모기도 이어졌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도정발전과 생명의 삶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큰 교훈과 표본이 된다"고 추모했다. 이종구 전 국무총리는 "당신이 보여주시는 강인한 신념과 도전 정신, 그리고 기업인으로서의 자세를 미래의 우리 승으로 뚜렷하게 각인하고 있다"고 했다.

시각장애인 파이낸스 강상수 씨의 추모 연 주영삼도 윤리인 추모관에 게시됐다. 강 씨는 뜻대로재단의 지원을 받아 미국 배급리움대에 다녔다. 뜻대로주 사옥 내에 설치된 오르라인 추모관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신 회장이 가족을 대표해 연애했다. 연락처 기사 [love@donga.com](mailto:love@donga.com)

## 'Let It Be' 등 비틀스 명반 만든 프로듀서 스펙터 사망

### '월 오브 사운드' 팝음악 기념 개발 살인죄 복역중 코모나 걸러 숨겨



비틀스의 전 음악 프로듀서이자 팝 음악 혁신자인 빌 스펙터(사건)가 18일(현지 시간) 수감 중 사망했다. 향년 73세.

1989년 미국 뉴욕에서 태어난 스펙터는 10대 때부터 음악가로 활동하다 작곡가 겸 프로듀서로 정평났다. 뉴욕 스튜디오에서 소수의 약 700명이 넘는 소리를 반복해 쌓아올려 풍성하게 하는 기법인 '월 오브 사운드(Wall of Sound)'를 개발했다. 스펙터의 기념비적 보이스, 아바바는 수많은 음악가가 따라하면서 팝 음악계의 새로운 표준이 됐다.

스펙터는 비틀스의 마지막 정규앨범인 'Let It Be'를 비롯해 존 레논의 'Imagine', 조지 해리슨의 'All Things Must Pass' 같은 명곡의 프로듀서로 명성을 올렸다. 영화 '사운드와 영혼'에 실린 라이처스 브러더스의 'Unchained Melody'의 코정인 코너의 'Be My Baby'도 그의 손을 거쳐 탄생했다.

그러나 말년은 갑질과 가리기 많았다. 2000년 캘리포니아에 있는 스펙터의 자택에서 아내 유제이나 클리크슨이 총살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된 뒤 2009년 스펙터는 살인죄로 최소 19년형을 받고 무죄판결. 그는 지난해 12월 산호 코코나 바이러츠 감영중(코코나) 119 확진 판정을 받고 코코스 병영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임종지 기사 [love@donga.com](mailto:love@donga.com)



군대 '탈레반'에서 후직하는 병사들 육군 51사단 5명병들이 방정석(가운데) 씨와 2차기과 2중기과를 비롯하고, 제1609호 수사팀에서 후직을 하고 있다. 육군은 5명병들의 복귀 여건 개선을 위해 방정 내내 최신 시설과 휴게공간을 결합한 병영시설을 최근 최초로 시범운영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육군 1609

**알림합니다**

**제18회 영랑시문학상 추천 받습니다**

전남 강진군과 동아일보사는 제18회 영랑시문학상 후보자를 추천 받습니다. 음악 시상합니다. 이를 통해 영랑의 시 세계를 재조인 시와 영랑의 서정성으로 우리들의 조망하고, 작가의 창작 활동을 격려하고자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인 추천의 문입니다.

● 대상: 2021년 1월 18일 기준 동년 20년 이상 시인의 2019년 1월 1일~2020년 12월 31일 출간된 시집으로 다른 문학상을 수상하지 않은 작품

● 추천: 제18회 영랑시문학상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심사위원이 추천

● 시상식: 4월 30일 전남 강진군 영랑 영랑

● 상금: 3000만원 ● 문의: 02-361-1433

주최:  

목록



GANGJIN

***Web Contents***

